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탁족도(濯足圖)

중국 송나라 당시의 스님인 석법훈(釋法薰, 생몰연대 미상, 속성은 팽씨(彭氏), 호는 석전(石田)은 선인망월탁족(仙人望月濯足)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인(仙人)이 달을 보며 개울에 발담그는 풍경을 읊는다.

夜靜山空月半彎 야정산공월반만
挽衣垂足滌潺湲 만의수족적잔원
無人領此深深意 무인영차심심의
別向壺中更覓天 별향호중경며천

밤 고요한 빈산에 반쪽 달 떠 있는데
옷 걷고 발 뻗어 개울물에 담가보네
아무도 이 깊은 뜻 알아보는 이 없어
고개 돌려 병속에서 다시 하늘을 찾네



이경연의 '고사탁족도'

〈벽암록(碧巖錄)〉에 보면, 한 스님이 동산(洞山) 스님에게 춤거나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동산 스님은 더위와 추위가 없는 곳으로 가라고 답한다. 다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동산 스님은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라고 답한다.

굴원(屈原)은 〈어부사(漁父辭)〉에서 “창랑의 물이 맑거든 갖건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발을 씻는다(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라고 설파하며, 세속의 혼탁함을 떠나 청량(淸涼)한 은일의 세계로 돌아가 휴식하는 모습을 읊었다.

탁족도는 그림 속에 술을 받쳐 들고 있는 어린 동자와 함께 그려지는 경우, 산행(山行)에서 돌아와 발에 묻은 흙과 먼지를 씻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매우 간략한 자연 풍경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는데,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꼬고 발을 개울물에 담고 있는 모습이다.

복송 당시부터 화제(畫題)로 등장하여 칭나라 때에 간행된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의 점경인물조(點景人物條)에 수록돼 있으며, 한국에서는 조선 중기를 중심으로 간간히 그려졌다. 서화의 대가들인 이경윤(李慶胤)의 전칭작인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와 이정(李禎)의 '노옹탁족도(老翁濯足圖)', 필자 미상의 '고승탁족도(高僧濯足圖)', 조선 후기 최북(崔北)의 '고사탁족도' 등 상당수의 탁족도가 알려져 있다.

굴원이 발을 씻는 의미는 사실 혼탁한 세상을 떠나 속세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의 휴식을 얻으려 한다는 의미다. 씻는다는 의미는 첫째 청결을 위해서, 둘째 치료를 위해서, 셋째는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씻기도 한다.

발을 씻는 것은 속세의 먼지 털기
탁족도는 청정 되살려 휴식 얻기

브라마교의 의식 중에는 성스러운 물로 목욕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씻는 의식이 있고, 힌두교에서는 갠지즈강을 순례지로 하여, 그 물에 닿기만 해도 모든 죄를 씻어 해탈(解脫)로 이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힌두교도는 나날의 두려움을 없애고 아침을 맞이 위한 목욕을 매일 아침 의례로 삼는다.

불교에서 다르마(dharma)란 부처님 법을 나타낸다. '부처님 법에 귀의한다'의 '법'이 바로 이 다르마를 번역한 것으로 인도어로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다.

흐르는 물에 사람의 몸이 이동하는 매개수단인 발을 담그으로써 혼탁한 속세의 분진에서 벗어나 청정(淸淨)을 되살리는 의미와 세속을 떠나 은일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탁족도에서 볼 수 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깊은 산속 흐르는 청간수(淸澗水)에 발을 담고, 좌관시사(坐觀時事如流水: 가만히 앉아 세상일을 보니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의 마음으로 세상을 달관(達觀)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가고 음

뜨고진다.
가고온다.
자연의 순환을 지켜보며

마음자리를 정돈한다.
떠들지 말자.
쉬...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각상 조선 설암추봉 선사(의)의 '가을 생각(秋思)'

고향 달빛 속에 스며든 그리움

節序看看屬仲秋 (절시간간속중추)
故山烟月幾回頭 (고산연월기회두)
北堂已阻斑衣舞 (북당이조반의무)
西塞還添白髮愁 (서새환첨백발수)
高樹引風殘暑退 (고수인풍잔서퇴)
小池含雨早涼浮 (소지함우조량부)
天涯流落空漣幕 (천야유락공지모)
一望鄉關恨晚悠 (일망향관한만유)

절기가 점차 한가스로 접어들는데
고향의 으스스달 및 번이나 돌아보았던가.
어머니는 이미 색동옷 춤을 단절하였는데
서쪽 변방에서는 도리어 백발의 시름을 보태네.
큰 나무 바람을 마중하니 늦더위 물러나고
작은 못 비를 머금으니 이른 추위 이네.
하늘 끝 타향살이 공연히 저물녘에
한번 고향 바라보니 한이 끝이 없네.

설암추봉(雪巖秋鵬; 1651~1706) 스님은 스승인 묘향산 월저(月渚) 대사에게서 참학하며 10여 년 만에 선교를 모두 통했다. 이 시는 묘향산에서 늦더위가 물러나고 서늘한 바람 부는 중추(仲秋)에 멀리 타향살이에서 마주하는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그리움

에서 비롯된다.

저 노래자(老萊子)가 일흔 살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늙은 어버이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 어버이를 즐겁게 했지만 자신은 보아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음이 싫다. 10세에 출가해 백발이 된, 특히 오늘 같은

중추절에는 고향의 달빛 속으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 촉촉하게 스며든다. 할애사친(劬愛捨親)한 출가자에게 속세의 정은 놓아버리고 끊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스님의 효심에는 출가자의 본분인 제도해야 할 인연이라는 생각도, 인정(人情)을 다스려야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머리가 허영계 선 스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소박함과 순수함 그대로인 아련함 그리움이다. 치문(齋門)에서 한 세상 살다 늘그막에 찾아드는 부모에 대한 정(情)은 스님에게 있어 순환하는 사계(四季)처럼 찾아드는 자연스러운 질서요 현상일 뿐이다.

또 걸림 없는 한(恨)으로 승화된 보살의 자비심이 무주착(無主着)의 선심(禪心)이기도 한 것임을 어지간한 수행자는 곧바로 알아채리라.



원법 스님(문헌사·문학박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극빈마을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신씨 출가식 지원

신씨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씨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